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미사 독서: 유현영 사도요한, 이지원 사비나
 다음주 미사 독서: 류성진 스테파노, 김민정 켈마
 금주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윌프레드
 다음주 미사 복사: 신승원 로이
 금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윤지희
 다음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지원 카린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1 차헌금: \$462
 2 차헌금: \$162
 감사헌금: \$135
 합 계: \$ 939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2월 10, 24 일)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계시관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시 45분 성당친교실 (2월 4, 18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 집 (2월 3, 17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2월 18일 저녁 8시 이글하이즈 커뮤니티 센터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시어 시몬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병든 이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시어 외딴곳으로 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러 또 다른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남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남의 행복을 위해 보내셨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그냥 지나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는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는 삶에서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물이 물질적인 필수품이라면 인간이 느끼는 보람은 정신과 영혼에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남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불행한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한 그만큼 내 주변의 불행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도 그 문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
 thekccm

Facebook
 www.facebook.com/
 home.php?sk=group_
 210193849001633

2012년 2월 4일

[연중 제 5 주일]

<제 1 독서> 욥기 7,1-4, 6-7

<제 2 독서> 코린토 1 서 9, 16-19, 22-23

화답송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복음 1, 29-39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오늘의 성가] 시작: 26 봉헌: 219 성체: 499 파견: 6



특별 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평화

소희숙 수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또는 “분열을 주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지난 ‘제주 강정마을 사태’로 주님의 이 말씀을 나름대로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 말씀은, 불의 앞에서 눈감고 입 다물고 침묵하며, 마침내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마저 포기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며 깨우시는 외침이었다. 명백한 불의를 보면서도 즐기고 있는 나의 의식을 일깨우시는 말씀이었다. ‘평화’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쟁취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다. 안중근(토마스) 의사가 왜 의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제주도는 세계생물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세계인이 경탄한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평화의 섬이다.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제주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1.2km의 한 덩어리인 ‘구름비 바위’를 폭파하고 그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해군과 정부의 결정이 그것이다. 평화의 섬에다 전쟁을 대비한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강정마을과 제주도의 평화는 물론 우리의 염원인 평화적 남북통일은 완전히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아시아의 안보와 평화질서가 깨지는 전쟁의 핵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악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전쟁 가능성 1%만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의 공사인 것이다. 막아야 한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우리 수녀들은 1월 10일 오후 2시 30분 쯤 해군기지 건설 정문 앞에서 기도드렸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시어 공사를 중지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53 배를 올리고 연이어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것이 업무방해죄가 돼 형사들이 수녀 18명, 신부 1명과 여성 2명을 체포, 서귀포경찰서로 강제 연행, 강력수사과로 넘겼다. 같은 날, 양현모 교수 외 8명이 동부경찰서로 연행되는 사고도 있었다.

11일 새벽 12시가 되자 갑자기 많은 형사들이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여성 2명을 수녀들과 분리, 동부경찰서로 연행해 가는 과정에서 묵주가 바닥에 떨어지고 베일이 벗겨진 수녀도 있었다. 죄가 없으니 석방된 것은 당연지사지만 감사로운 것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 공개적·공식적으로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정부와 해군의 부당함을 천명하고 나선 일이다. 강정마을 주민과 그들을 보시는 창조주의 아픈 마음이 위로 받으시는 듯했다. 주님의 황금갑옷을 입고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린 사도들의 행진을 보는 듯해서 감사할 따름이다.

주님께 감사!

† 공지사항

- 성당 주소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성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할 사항 있으면 김주현 안토니오 (jhkim73@gmail.com) 형제님에게 알려 주세요.
- 주일학교 교사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목위원이나 주일학교 교사들께 말씀해 주세요.
- 성당 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로고를 직접 디자인 해 주신 조현상 그레고리오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미사 후 간식은 유지만 크리스티나 세례식 및 돌을 맞아 유현영 형제님/이지원 자매님 맥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 성가책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여유분 성가책이 있으면 성당에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 사목회 구성을 위한 사목위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1인당 7명씩 골라서, 득표수에 따라 10명의 사목위원을 선출합니다.
- 황지혜 레지나 자매님이 2월 9일 목요일 솔로 리사이틀을 합니다.
시간: 저녁 6시 30분 장소: Humanities Bldg, Morphy Hall



교황 베네딕토 16세 세계 병자의 날 담화

“병자, 고해성사, 주님 은총의 도구”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올해 제정 20주년을 맞는 세계 병자의 날(매년 2월 11일) 담화문을 발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담화문에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병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동화되도록 도와주는 하느님 은총의 도구라고 밝힌 교황은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결합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과 죄에서 희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오셨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는 모든 자녀에게 충만한 화해와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늘 관심을 보였고, 제자들을 파견해 그들의 상처를 돌보게 했으며, 특별한 성사인 병자성사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병자성사 중 성유의 의미를 ‘하느님의 약’으로써 병고를 넘어 결정적인 치유인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병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목적 배려는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 자애의 표징이며, 동시에 사제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주는데, 이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